

딱지본으로 만나는 고전소설 책 그림... 완판본문화관 기획전시

책 그림, 이야기를 디자인하다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딱지본으로 만나는 고전소설 책 그림'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 그림, 이야기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완판본문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구운몽,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등 13점의 딱지본이 전시된다.

딱지본은 1900년대 초 신식 활판 인쇄기로 찍어 발간한 책을 말한다. 책의 표지는 아이들의 놀이도구인 딱지처럼 다채로운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내용은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있는 책이다. 딱지본은 소설류가 대부분으로 고전소설, 신소설 등 많은 종류가 간행됐다.

고전소설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필사본을 시작으로 목판에 새겨 인쇄한 방각본을 지나 활자본 소설로 유통되면서 독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또한 당시 국수 한 그릇 값인 6전이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해 육전소설(六錢小說)이라고 불리기도 해 이야기책으로 여가를 즐기는 독자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했다.

이번 딱지본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책표지 그림이다. 딱지본의 표지는 작품의 내용 가운데서 흥미로운 장면을 채색 그림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시선을 끌도록 인쇄 되어져 있다.

표지 전면에 소설 속 인물, 공간 등을 배치해 독자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림은 상업적인 책 표지 디자인의 시작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필사본, 방각본, 딱지본의 비교를 통해 출판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구성과 함께 완판본문화관 소장 딱지본 13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소설의 줄거리와 책표지를 함께 전시해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책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완판본문화관에서는 이번 기획전시 기간 중 책 그림 채색 체험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전시 관람은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허용된다.

전시에 관한 문의는 완판본문화관(063-231-2212)으로 하면 된다.

/잠은성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대시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문 '차하' 수상

부안군립농악단(단장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 부단장 이옥수)은 지난 11일 전라남도에서 열린 제46회 전주대시습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농악부문(비대면, 현장심사) 전국 3위인 차하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한민국 국악계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대시습놀이 전국대회는 올해 46회째로 국악분야 최고의 등용문으로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과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예술의 전통성을 전수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 농악 등 총 12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농악부문은 충청,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팀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농악단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의 풍년과 풍어의 마음을 가득담은 흥겨운 판곡으로 마을의 수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지구촌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소망을 담은 흥겨운 공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창단한 부안군립농악단은 부안농악의 보전·계승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문화관에서 소장 중인

구운몽·심청전·춘향전

홍길동전 등 13점 선보여

줄거리·책표지 함께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공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종식 응원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공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디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익산문화관광재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지목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모든 방역·의료진과 공직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예술인과 관광업 관계자, 그리고 도민이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전북 공연예술페스타

31일까지 온라인 개최

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전북의 우수 창작공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2020 전라북도 공연예술페스타(JBPAF)'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연예술페스타(이하 페스타)는 전라북도 공연예술분야 창작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및 우수창작작품을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2020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지난 8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관객 거리두기 공연, 무관중 공연 등으로 진행했으며, 재단은 공연을 원활히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온라인 페스타를 준비했다.

제작된 16개 페스타 작품(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장르)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유튜브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또는 '2020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를 검색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람이 어려웠던 공연을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문화 향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근대교과서가 궁금하다구요?



'광복 이후, 교과서의 봄'으로 유혹

채만식 문학관이 '광복 이후, 교과서의 봄', '청사초롱 시등' 전시회를

군산 채만식 문학관서 전시 중

종업장 생활통신 표, 국민학교 수료증 등 그동안

전시회를 준비했다.

광복 이후, 교과서의 봄'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시됐던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시간' 展에 이은 근대교과서 기획전으로 그동안 군산시민과 단체들로부터 기증받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80여점이 전시됐다.

광복 이후 한문독본, 선행, 공동생활, 우리나라 문화사, 이웃나라의 생활, 도안비료 등의 교과서부터 1970년대의 국어, 산수, 바른생활, 민중생활, 자연 등의 교과서까지 다양한 교과서와 함께 당시의 졸업 사진과

들로부터 기증받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소장품 80여점이 전시됐고, 당시 교과서에 나오는 철교놀이와 교과서 속 틀린 그림 찾기 등 연계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청사초롱 시등(時燈) 시백(時백) 전시회는 군산의 대표적인 문학동인회인 청사초롱 문학동인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생활용품인 등(燈)과 예코백을 활용해 표현한 시 작품들이 문학관 2층 전시관 입구에 전시됐다.

청사초롱문학동인회는 1986년 이후 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 주최 주부백일장 수상자로 구성된 순수 문학단체로 15명의 회원들이 시등(時燈) 시백(時백) 전시회를 위한 재능기부에 참여해 총 90여점의 시공예작품을 전시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대한민국 대표 임실치즈는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바른 먹거리입니다!

시각예술에 재능있는 자 모여라

전주콘텐츠편제 '퀵템점프' 전시작가 공모... 접수기간은 19~23일

(재)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20 전주콘텐츠편제 '퀵템점프'에 전시할 시각예술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시작가 지원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

재단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과 예술의 디지털 시대를 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0 전주콘텐츠편제 '퀵템점프'를 진행한다. '퀵템점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술가의 작품과 기업의 콘텐츠를 전시하고, 온택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인 웹세미나를 마련해 기초예술과 ICT기술의 협업에 관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결합해 상호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전시도 진행한다.

2020 전주콘텐츠편제 '퀵템점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예술가의 폭넓은 창작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예술의 새로운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예술과 ICT기술의 협업을 시도한다. 특히,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 '1 예술가X1기업' 협업 부스전시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간 3D 스캔을 통해 온라인 가상갤러리를 구축해 온·오프라인 전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구축되는 온라인 가상갤러리는 향후 지역의 전시 콘텐츠 이야기로 구축과 함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 전시를 위해 기초예술과 ICT기술의 융합에 관심이 있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전주 연고의 시각예술가 10인을 공모한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전시지원금 각 100만원이 지급되고, ICT기업과 연계하는 하나의 부스에서 협업전시도 진행한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매칭된 예술가와 기업이 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은성 기자